

이철수 '아이들 뒤따라 올 텐데'전... 5일부터 한달간 상록전시관

관화로 시를 쓰는 작가 이철수씨. 그의 그림은 쫓기듯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지친 현대인에게는 위안과 안식을 준다. 관화를 보는 사람들은 시나브로 사색과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빨려들어간다. 그 작업이 올해로 32년째를 맞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이철수 목판화 32년을 결산하는 '아이들 뒤따라 올 텐데'전을 연다. 전시주제는 어지러운 정치와 사회에 대해 그가 느끼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시에서는 초기작인 1980년대의 민중미술 목판화부터 평화를 염원하고 존재를 성찰하는 선(禪)적인 이미지를 담은 최근 작품까지 12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모두 세 차례 걸친 화풍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씨는 1980년 독학으로 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관훈갤러리에서 저항적 메시지를 담은 목판화 개인전을 열면서 민중미술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의 걸개그림은 저항운동의 상징이 됐고, 민중미술의 지향점으로 부각됐다.

이씨는 80년대 말 자기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영역으로 눈길을 돌린 뒤 아예 총부 재전에서 농부로 산다. 창작공간을 옮긴 그는 자연과 인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관화의 한권을 차지하는 그의 글은 깊은 사유의 공간을 열어주는 따뜻한 언어다.

법정 스님은 "이철수씨의 글에서는 저변 연기 피어오르는 산촌에서 쇠약해 삶는 질박하고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난다. 그의 그림에는 시가 깃들어 있다. 이런 질박하고 구수한

문장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라고 했다.

그의 세번째 변환기에 해당하는 2000년부터는 선(禪)과 자연, 일상을 담은 작품들로 대중들과 호흡한다. 지난 2002년부터는 매일 일기처럼 목판화를 찍어 이메일로 발송하는 '나뭇잎 편지'로 세상과 소통했다. '나뭇잎 편지'는 '밤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 '가만가만 사랑해 야지 이 작은 것들'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등 책으로 묶여 나왔다.

전시 개막식은 10일 오후 4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리며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062-613-539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좌탈- 보라 꽃이다'

사색과 성찰의 시간... 편안한 심을 얻는다

목판화 32년의 메시지... 128점 작품 전시
10일 개막식... 20일·27일 작가와의 시간



'해-장작더미'



'새벽이 온다. 북을 쳐라!'



'등 뒤에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년 연속 우수센터 선정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전국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12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연구'에 따르면 광주센터는 리더십, 전략, 직원, 협력 및 자원, 사회성과 등의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대구, 대전, 부산, 서울센터와 함께 우수 센터로 평가됐다.

광주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광주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고 정책사업을 효율적이면서도 지역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의예술학교', '아트힐링스쿨', '조선족학교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이 뚜렷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예술 감독 모집... 15일부터 접수

광주문화재단이 제2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예술 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오는 10월 28~30일 열리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개최됐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미디어아트 전시 및 축제의 기획·실행 유

경험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선정 방법은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로 진행된다.

응시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한일 젊은음악가 교류콘서트' 노가와 히토시 아야메 재단 이사장

"광주에 다양한 문화 전할 수 있어 의미 깊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광주일보사가 진행하는 '일본문화페스티벌' 두번째 행사로 마련된 '제6회 한일 젊은음악가 교류콘서트-From Switzerland'가 3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스위스 바젤의 아이메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김원호, 사야카 세리나, 쿠리타 아사코씨가 참여했다.

공연 당일 만난 노가와 히토시(70) 아야메 재단 이사장은 일본과 한국에서 음악회를 여는 이유는 '문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음악을 포함한 문화 교류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이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식민지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한국과 깊은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

노가와 이사장은 광주에서 처음 공연을 갖게 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 경제가 모두 중앙집중적이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도

교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한 차례 정도만 진행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지방을 찾아가 연주한다. 서울과 함께 광주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도 지역에 다양한 문화를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노가와 이사장의 개인사는 파란만장하다. 1945년 전쟁 반대론자였던 부모가 우익에게 살해되면서 그는 현 시세로 15억원가량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15살 되던 해 할아버지는 24시간안에 꽤 큰 돈을 다 쓰고 오라는 숙제를 냈다. 단 물건을 사거나 저금을 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었다.

"저축도, 물건을 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쓰라고 하니 쓸 데가 없었다. 원금을 거의 다 시 들고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세상에는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돈이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때부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일본에서 통계학을, 독일로 유학가서는 정신 분석을 공부한 노가와 이사장은 스위스에 정착

하면서 한국 고아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1974년 고아원 시설을 돌리보기 위해 광주를 찾기도 했다. 또 빠타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태고, 달라이 라마의 망명 정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노가와 이사장은 오랫동안 첼로를 배웠다. 또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그는 2008년 아야메 재단(이름은 화재 당시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개 이름에서 따왔다)을 설립해, 바젤로 유학한 한국·일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본과 한국 콘서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50년이 되는 해다. 이번 연주회가 성황리에 끝나 그 때 광주에서도 다시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15년까지 이번 투어에 참가한 김원호와 사야카 세리나가 제네바 콩쿠르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혹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 광주에서 만났던 연주자구나 기억해주기 바란다.(웃음)"

/글·사진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Duniopillo

Duniopillo

ITALIA BED

단롭침대 광주 대리점, 천연라텍스 100%
세계최초 최고 라텍스, 유기농 항균커버, 척추질환 교정,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영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1899-0240